

2010년대 이후 여성 소설에 나타난 장애 재현의 전복성 -‘돌봄’ 윤리를 통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 해체 서사를 중심으로

박찬효(대중서사학회)

1. 서론 : 연구 방법과 연구 목적

1. 연구 배경

“21세기 이후 윤리학의 초점이 주체에서 타자로 이동. 이때 부각되는 것이 ‘돌봄’ 윤리” + 장애는 치유를 목표로 돌봄과 관리의 대상이 될 때 비장애 존재와 변별
⇒장애-비장애의 경계 해체 위해 돌봄 윤리에 주목할 필요.

2. 연구 대상 : 2010년대 이후, 전형적 장애 형상에서 벗어난 여성 소설 등장. 김미선 〈버스 드라이버〉(2013), 공선옥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2013), 김초엽 〈므레모사〉(2021)

3. 연구 방법

- 1) 캐롤 길리건의 돌봄 윤리 : ‘자기 돌봄’에 대한 인식을 통해 인간 상호 관계의 중요성 부각. ‘여성적 윤리’로서의 돌봄에 대한 비판과 ‘여성주의적 윤리’로서의 돌봄 강조.
- 2) 해러웨이의 ‘함께-되기’ : 서로 얹힌 존재들이 연결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함께 되어가는 실천(길리건 이론과 연결).
- 3) ‘돌봄’ 윤리를 기반한 취약한 존재의 대항 서사 분석하면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 해체 가능성 탐색.

자기 서사	자기 삶을 이야기, 수필·편지·자전적 소설 등 타자화된 경험의 재현 가능성, 자기 돌봄의 윤리
공명의 서사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응답하고, 다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서사, 이야기와 이야기가 만나 공명하는 서사
함께되기 의 서사	모두가 퇴비인 세상에서 서로 관계를 맺으며 혼합, 장애인과 자연이 상호 연결되는 서사

4. 연구 목적

그동안 여성 SF를 중심으로 장애가 연구된 것에서 더 나아가, 여성 장애 소설의 저변 확장. 장애인(의 신체)을 무성적 대상, 국가의 고통을 담은 몸, 비극의 장소로 규정하는 것을 거부하기 위한 인식 틀로서 ‘돌봄’ 윤리에 주목. 세 작품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자기 돌봄의 양상과 더불어 자기 돌봄의 저항성(김미선), 자기 돌봄이 상호 의존 관계로 나아가는 과정(공선옥), 서로의 존재가 혼합된 함께-되기로 형상화되는 양상(김초엽)까지 분석함으로써 비장애중심주의를 넘어선 장애 재현의 전복적 서사를 살펴볼 것.

2. 자기서사, 여성적 윤리로서의 돌봄 비판과 무성적 대상화의 거부 : 김미선, 〈버스 드라이버〉

1. 기존 논의는 비장애인 중심의 성 담론을 해체한 소설로 평가. 이 연구는 더 나아가 가부장 질서에 종속된 여성적 돌봄이 소아마비로 신체적 장애를 지니게 된 여성을 무성적으로 대상화하는 양상을 비판하고, 장애 여성이 자기서사를 통해 자기 긍정에 이르는 과정 주목.

2. ‘자기서사’로서의 〈버스 드라이버〉

자기서사는 “남이 요구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느끼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는 측면에서 자기 돌봄의 윤리와 만남”

에세이, 〈이 여자가 사는 세상〉 소설, 〈버스 드라이버〉

어머니의 딸 양육 : 넉넉한 품의 옷을 입힘, 가정 을 못 이룰 것이라는 걱정	장애 여성이 ‘혼자 사는 법’을 가르치는 양육 방식 비판, ‘무 성적 대상화’의 거부
시어머니의 아들 양육 : 직업적으로 유능한 남성으로 성장, ‘전지전능한’ 모성	희생적 치유 노동으로 장애 남 성을 생산적 노동자로 변화시 키는 ‘대리 치유’ 비판

3. “나에게 필요한 건 꼭 한 번의 경험”이라는 절규로써 기존의 가치관에 도발적으로 의문을 제기. 가부장적 여성의 돌봄 논리를 거부하면서 장애 여성에게 부여한 한계 해체.

3. 공명의 서사, 자기 돌봄의 인식과 장애 존재의 주체화 : 공선옥,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

1. 기존 연구는 5월 광주에서의 경험으로 정신적 장애를 갖게 된 ‘장애’의 ‘말’에 응답하는 공동체의 가능성(장애-묘자)을 분석. 여기서는 장애 여성의 장소가 마을 여성들이 자기를 돌보는 공간으로 전환되면서 “서로가 응답”(길리건)하는 의존 관계로 나아가는 과정에 중점을 두며, 돌봄의 주체가 ‘억척스러운 어머니’가 아니라, ‘연약한’ 존재임을 주목.

2. 공명의 서사,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

박샌댁과 정애	박샌댁은 박샌에게 강간 당한 정애와 아버지에게 ‘몹쓸 짓’을 당한 자신을 동일시.
마을 여성들과 정애	장애의 말과 그림은 마을 여성들에게 경의로운 의미를 담은 것이라 불행을 함께 걱정하는 매개.

⇒장애 여성은 마을 여성들과 상호 의존 관계에 있는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자 숭배해야 할 타자로 격상.

2) 연약한 자들과 삶의 지속 가능성, ‘순환’하는 돌봄

① 묘자가 장애 여성 단이와 그녀의 갓난 아기를 돌보고, 성장한 단이의 아이가 장애 여성 정애를 돌보고, 정애의 목소리가 감옥에 간 묘자를 돌봄 ② 어머니는 돌봄의 주체인 동시에 돌봄의 대상이 되며, 또한 어머니는 혈연과 동식물의 구분을 떠나 타자를 돌보는 것으로 형상화(인용문1).

3. 장애 여성 정애, 침묵 당한 타인을 발화시키는 주체로 :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는 연약한 이들의 이야기가 만나 공명하는 과정을 통해 장애-비장애의 경계 해체.

4. ‘함께-되기’의 서사, 치유 폭력에서 불구의 미래로 : 김초엽, 〈므레모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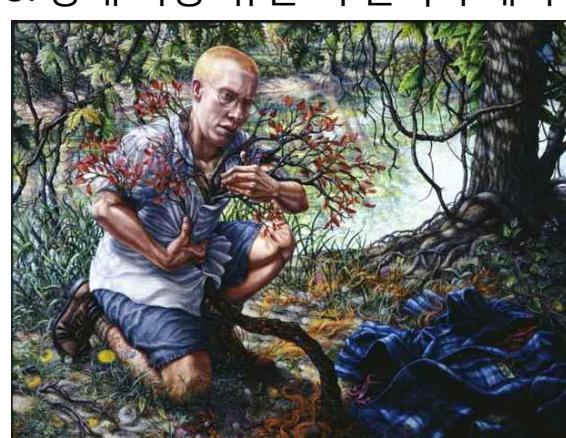
1. 여성 SF 소설에 나타난 장애를 분석한 논의는 공통적으로 비인간과 인간의 경계를 벗어나는 사유 탐색. 본 연구는 기존 논의를 수용하되, 새롭게 〈므레모사〉가 ‘좀비’와 장애 존재를 연결하고, 장르 문학에서 좀비를 학살 대상으로 간주하는 논리를 전유한 점 분석. 치유를 강요하는 폭력성을 비판하면서 장애인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돌봄을 부각한 점 주목.

2. 재난 지역 ‘므레모사’의 공간성 전환과 ‘함께-되기’의 서사

다크 투어리즘 ⇒ 테라폴리스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 명확, 재난 지역을 체험하며 교훈을 얻는 행위=장애를 구경하는 것	모두가 퇴비(“오염물, 죽은 것들과 산 것들이 서로 관계 를 맺으며 혼합된 것들”)
의족을 차고 발레리나로 성공한 유안은 ‘장애 영웅’, 유안은 치료 를 거부한 이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존재	움직이는 것이 움직이지 않 는 것을 돌보고 경배, 사고 로 ‘나무’처럼 변형된 귀환 자들의 공동체

(의료인의 시선에서 묘사된 므레모사의 풍경, 인용문2)

3. 장애 여성 ‘유안’의 선택과 레러의 <선회하는 이야기>(그림)



유안은 ‘테라폴리스’로서의
므레모사에서 장애를 선택한
공동체에 속하면서 자신도
기꺼이 나무가 되고자 함.
그림에서 뇌병변 장애인
클레이어가 자연에 접속하는
이유는 치유를 위해서가
아님. 인간이 지구, 뼈 등과
함께 잘 지낼 수 있는지
고민하는 행위.

